

소규모 샵터 조성사업 확대

남원시, 귀농귀촌 5가구 이상 → 4가구 이상 공동 기반시설 지원

귀농귀촌 1번지 남원시가 귀농귀촌 인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소규모 샵터 조성사업을 확대해 지원한다.

소규모 샵터 조성사업은 마을에 맞는 귀농귀촌 가구가 모여서 살 수 있도록 남원시가 샵터 조성에 필요한 공동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포장, 전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5가구 이상이 모여 있을 경우 지원해 주었던 최소 지원 가구 수를 올해부터 4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귀농귀촌 가구가 남원에서 샵터를 조성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소규모 샵터 조성사업은 기존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입소문을 타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로 부터 관심과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소규모 샵터로 조성된 운봉 화신마을이 전라북도 귀농귀촌 우수마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마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타 시·군의 벤치마킹 및 귀농귀촌 지원사례 교육 자료로 활용되는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효과적인 귀농귀촌 지원 시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귀농귀촌 1번지 남원시가 귀농귀촌인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소규모 샵터 조성 사업을 확대해 지원한다.

남원시는 최소 4가구부터 19가구까지 가구 수 별로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을 차등 지원한다. 지금까지 운봉읍, 산내면, 금지면, 사매면, 이백면 일원에 20개소 이상의 소규모 샵터가 조성됐다. 올해는 예산 6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7개소 이상 지원 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2012년부터 귀농귀촌 전담

팀을 운영해 지난해까지 모두 5,100여 명의 도시민이 남원에서 제2의 삶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귀농귀촌인 1,000명 유치목표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한편, 남원시 귀농귀촌 정책은 시청 홈페이지나 농정과 (☎820-6361~6364)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전북도와 '미생물산업 육성방향' 포럼

장내미생물산업기지 산업화 확대 논의

순창군의 장내미생물산업이 전북도 아시아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의 핵심사업으로 떠오르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순창군은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8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4차산업 혁명시대 전북미생물산업 육성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대산공약사업인 전라북도의 '아시아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 사업' 중 순창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는 장내미생물산업기지의 나아갈 방향과 산업화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바이오기업과 연구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해 최근 국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장내미생물 산업에 대한 관심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장내미생물산업은 이미 미국이나 네덜란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

만 국내에서는 순창군이 처음으로 선점한 사업인 만큼 전문가들의 시선을 모았다.

주제 강연자로 나선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정도연 원장은 '몸이 나이 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장이 나이 드는 건 막을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전라북도와 순창군이 장내미생물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건립을 위한 연구사업과 먹는 미생물의 산업화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정숙 책임연구원의 '장내미생물 기술활용과 산업육성'의 발표가 있었으며, ㈜마크로젠 김동선 과장, 한국식품연구원 임성일 본부장, ㈜바이오리더스 성문희 대표,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 등 연구기관과 기업 전문가들이 미생물산업 육성, 식의약 측면에서의 미생물의 활용가치, 농식품 산

업으로의 사업 다각화 등에 대한 뜨거운 토론도 이어졌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는 "국내에서 발효식품이 잘 발달된 순창을 중심으로 미래의 블루오션이라 일컫는 먹는 미생물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은 그동안 발효식품의 기반이 되는 발효미생물 산업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면서 "올해부터 농식품 분야에 활용될 장내유용미생물 은행이 순창에 건립되는데, 산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순창군은 이미 고추장, 된장, 식초 등에서 4만여종의 산업화 가능균주를 확보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장내미생물은행과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시설, 연구기반 등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아시아 미생물 은행 허브로서의 위치를 선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경영안정에 많은 보탬이 되길”

순창군, 전북신보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순창군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로 뜻을 모았다.

군은 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황숙주 군수와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관내 6대 금융기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창군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5천만원의 출연금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6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최대 3천만원 까지 최대 5년간 특례를 보증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란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1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상환기간은 최대 5년(1

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융자실행 후 융자금 이자를 순창군에서 연이자 4%한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2년 이상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이상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청절차는 소상공인이 순창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관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실시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황숙주 군수는 “그간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특례보증 협약을 통해 경영안정에 많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많이 신청해서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문홍식 임실군의원 6.13 지방선거 불출마



임실군의원 5대, 6대, 7대 의원 및 제7대 의장을 지낸 문홍식(임실읍.성수면) 의원이 6.13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문홍식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의 정치신인과 참신한 후배들이 임실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불출마 배경이유를 밝혔다.

문 의원은 “2006년 7월 임실군의회에 입성해 2018년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보태주시고 응원 해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인월면 희망복지 상담실 발대식

남원시 인월면에서는 인월장날(5일장)에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복지상담 및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3월~11월(장날)까지 남원시 인월시장내 상인회 1층사무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찾아가는 5일장에는 10개반 15명(1읍·3개면 6명, 인월보건지소 2명, 장애인종합복지관 1명, 노인종합복지관 1명, 남원고용복지+센터 3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1명, 남원세무서 1명)으로 편성하여 3월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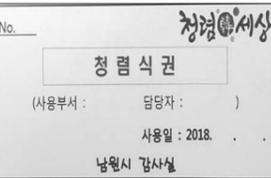
우리 주위에 위기상황발생으로 발견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긴급복지 지원 및 복지급여 지원, 서비스 연계등을 실시한다./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부패유발 요인 사전 차단 '청렴식권제' 시행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의 점심접대 등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청렴식권제'를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청렴식권제는 업무와 관련 있는 민원인(직무관련자)과의 불가피한 동행 식사(점심) 시 민원인의 식사비 대납, 청탁 등의 부패발생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청렴식권을 감사실로부터 발급받아 시청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제도이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기 정착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직무관련자와 공무원이 함께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건전하고 소박한 식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장 내 청렴분위기를



확대에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순기 감사실장은 “청렴식권제는 공무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에 일조하며, 업무 관련 민원인도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접대를 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며,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남원시에 청렴분위기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주민참여

순창군이 올해 40억원 규모의 풍산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참여가 본격화 돼 공모사업 선정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군은 최근 풍산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임춘기)가 주체가 돼 관내이장들에게 풍산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풍산면 관내 이장과 추진위원회, 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열악한 농촌 기초생활기반과 지역경관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